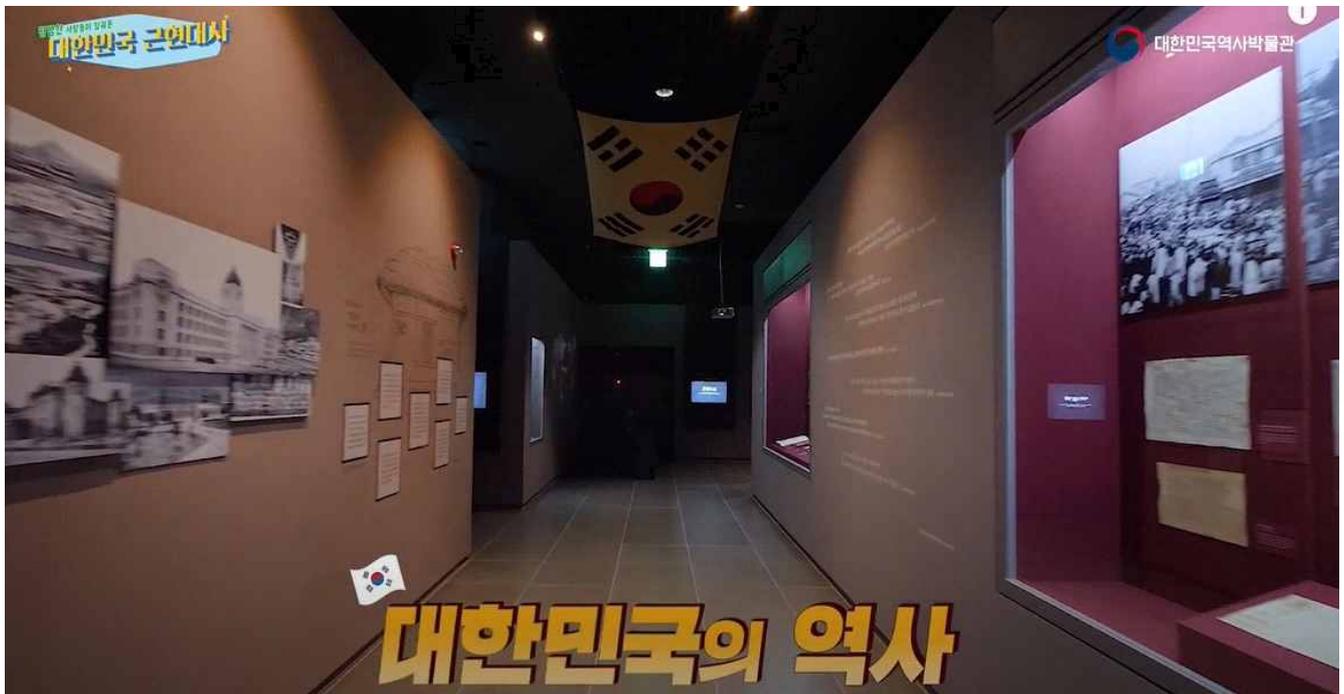


■ 영상택배 시즌2 - 세 번째 이야기 "범인(凡人)들이 일궈온 대한민국"



이번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층에 자리한 역사관 가운데 1894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록을 안내해주는 내용입니다. 5층에 자리한 상설 전시는 18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를 통해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민인들의 노력과 좌절,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교육의 경험으로 변화해 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범인(凡人)들이 만든 기적 (2003. 10. 13)

이번 호에 전하는 영상택배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궈온 대한민국”이다. 보통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또 만들어 온 역사가 우리 역사이다. 凡人(범인)들 모두 누군가가 될 수 있고 시자그이 외침을 지를 수 있었기에 우리 역사가 이만큼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근대화 이후 중앙정부의 집행력이 미치기 전 일상을 개척한 것 대부분은 바로 이 범인들의 힘에 있다. 6년 전 4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머뭇거리는 해경 123정을 보다 먼저 구조에 뛰어들고 제일 나중까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머물렀던 이들은 지역의 어민들이었다. 오늘 이야기할 역사 속의 오늘 역시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기적에 관한 내용이다.

신당동은 조선 영조 27년(1751년)에 반포된 수성책자『도성 3군무 분계총록』에 의하면 남부 두모방(성외) 신당리계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남서 두모방(성외)왕십리계의 신당리동으로 되었는데 신당동은 神堂을 모신 동네라는 뜻과 함께 무당들이 받들어 모시는 신령을 모신 집을 말하며 광희문 밖에 위치한 이곳은 많은 무당들이 모여 살아 무당촌을 이루어 유래되었다고 한다.

1983년 6월 신당역으로 지하철 2호선 역명이 결정된 이 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431-1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을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과 강북의 지하철 이용 수요를 담당하는 6호선이 지나는 역이다. 2000년 6호선 개통 당시에는 당시 환승통로를 공사했던 시공사가 부도나며 환승이 불가능하다가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환승이 가능해졌다.

월드컵 4강의 기적을 창조하는데 적잖은 힘을 나눴던 민인들의 응원 구호는 “대~한민국”이었다. 2003년 10월 13일 밤 10시 8분쯤 2002년의 환호는 기적을 바라는 구호인 “하나, 둘, 셋”으로 바뀌어 세상에 알려졌다.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기 위해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과 역에 머물고 있던 시민들이 열차를 한마음으로 밀어내 시민을 구조해 낸 이른바 “신당역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시민 한 명이 열차를 밀기 시작하더니 이내 열차 내 승객과 승강장에 서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 33t에 달하는 무거운 열차를 밀어 선로에 떨어진 승객을 구출했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후송된 뒤에 사망했다.

그러나 범인들이 만들어 낸 이날의 기적은 2005년 10월 17일 서울 천호역에서 같은 기적을 만들어냈고 2012년 12월에는 미국에서, 2013년 7월에는 일본의 지하철에서 2014년에는 호주에서 2015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각각 열차를 밀어낸 범인들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기적이 모이고 모이면 일상이 넉넉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 2003년 신당역, 33톤의 열차를 밀어낸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잊지 말자. 범인의 힘이 세상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임을 기억하자.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신비한 돌구멍 절 <팔공산 증암암> 두 번째 이야기 “팔공산 은혜사”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은혜사 대웅전 | 푸른 기와를 시원스레 머리에 이고 팔작지붕을 나래로 펼친 법당이다.

지난날의 은혜사는 다소 찾아가기가 어려운 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찾기가 아주 쉬워졌다. '청통와촌 나들목'으로 나와 우회전을 한 다음, 계속해 나타나는 표지판을 따라 3km가량을 가면 은혜사 일주문 앞에 쉽게 당도한다.

은해사의 사하촌에는 낡은 양철지붕을 머리에 인 올망졸망한 식당들이 늘어섰다. 그 사이로 난 좁다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은해사를 처음 찾는 이들의 기대가 한풀 꺾이기 십상이다.

그러나 일주문을 지나서부터 마음은 절로 맑고 상쾌해진다. 짙은 낙락장송들이 속세와의 절연을 이내 보여 주기 때문이다. '금포정禁捕町'이라고 불리는 조선 소나무, 그것도 소나무의 제왕이라는 금강송 군락이 보여 주는 경이로움이다.

은해사에서는 금포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 가운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라는 표현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착각으로 짐작된다.

붉은 용트림이 난무하는 송림을 지나는 맛은 늘 새롭다. 깊은 감동과 울렁임을 준다. 솔바람 소리에 청정한 마음가짐을 추스르고 늘푸른 자태에서 울곧은 절개와 죽대를 다짐하는 탓이다. 피안의 절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행여 소나무가 반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맥없는 일일까?

보화루에 거의 다다른 길목의 오른쪽으로 와불臥佛을 모셨다. 세월의 더께가 검게 물든 바위에 음각으로 누워 계신 부처님이다.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금포정의 솔바람을 쓰이며 지그시 눈을 감은 형상이다. 바로 뒤쪽으로 솟은 소나무 옆에는 거북바위가 물에 떴다. 본래는 '쌍거북바위'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일인들이 거북이 한 마리를 떼어 갔다고 한다. 나머지 한 마리는 물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횡액을 피하고 홀로 앉았다.

은해사 대웅전으로 향하는 문전에는 한량없는 세월의 무게를 버티고 선 암벽이 시루떡 모양으로 포개졌다. 계곡에서 뿜아 올린 물이 두 줄기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사람들은 여름날 이 폭포를 바라보면서 더위와 함께 마음의 때를 씻는다. 은해사에 안치된 괘불掛佛탱화는 보물 1270호다.

대웅전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간직한 소원지所願紙가 당간지주 구멍 사이로 매인 새끼줄에 주렁주렁하다. 저들의 소망은 언제 다 이루어질까? 푸른 하늘이 묵묵히 내려다본다.

다음 회는 <팔공산 중암암> 세 번째 이야기 "인종의 태실을 지나"로 여러분 곁을 찾아 오겠습니다.

